

# Legal Times

www.legaltimes.co.kr

2022 09

## LEADING LAWYERS 2022



리걸타임즈



## 일 러 두 기

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한국 로펌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문변호사 층도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증권·금융, 건설·부동산, 국제중재, 보험, 해상, 송무, IP, TMT 등 12개 분야에 걸쳐 ‘2022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2)’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잡지 전 지면을 할애해 단행본 형식의 ‘기업변호사 디렉토리(Directory)’로 꾸렸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해 함께 소개한다.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IPO(기업공개) 거래 등은 다소 줄어든 감이 없지 않으나 국내외 채권 발행 등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금융규제 쪽이 금융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최근 들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주요 로펌에 포진해 금융사 등의 리스크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국내외 채권 발행 기준

전통적으로 증권·금융 분야가 강한 법무법인 세종의 경우 자산유동화와 구조화금융의 전문가인 황호석 변호사부터 문경화, 이상현, 서태용, 엄상연, 김대식, 장윤석, 김용희, 양승규, 이종욱, 박용진, 송수영, 정찬목, 황도윤 변호사로 길게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다.

서태용 변호사는 IPO 자문으로 유명한 자본시장 전문가이며, 엄상연 변호사는 IPO와 함께 국내외 증권발행, PEF 운용 및 투자, 금융기관 M&A 등 금융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정의중, 조영준, 신희강 3명의 트리오를 중심으로, M&A 분야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양시경 변호사와 김기식, 조정래, 노미은, 이정훈, 김호진, 홍승일, 김지이나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김호진 변호사는 마스틴 투자운용의 알파리움 타워 매수 자문을 담당한 태평양 금융팀의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이며, 김지이나 변호사는 금융규제와

금융기관 M&A, 준법경영·부패방지, 내부조사, 국제거래와 통상, 경제제재 등의 사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태평양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IPO 거래를 이끌고 있는 신희강 변호사는 독일 Porsche사의 한국내 합작회사 설립 자문 등 독일팀도 총괄하고 있다.

선박금융 등 에셋파이낸스 전문가인 정우영 변호사와 자본시장 분야를 이끌어온 한원규 변호사를 양대 축으로 하는 광장 금융그룹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업무를 나눠 활약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윤정, 류명현, 조의연, 김대홍, 박정민, 이한경, 현승아, 김삼성 변호사가 최근 활발하게 일선에서 활동하는 광장의 주요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윤정 변호사는 선박금융 등 에셋파이낸스 전문가로, 최근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부실자산화된 해외 대체투자 건에서 국내 자산운용사와 수익자를 위한 자문도 하고 있다. 또 박정민 변호사는 프로젝트 개발 및 이를 위한 금융조달에 관한 자문이 주된 업무분야이며, 금융감독원에 공채 조사역으로 입사하여 다양한 감독실무를 담당했던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규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0명이 훨씬 넘는 변호사가 각기 분야를 나눠 활약하고 있는 김앤장 금융그룹은 박찬문, 허은진, 권오현, 박상용, 이정민, 김대혁, 박재홍, 정준아, 홍민영, 강현정 변호사가 특히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는 변호사들로 먼저 소개된다. 전문가 층이 빠르게 젊은 세

증권·금융		
김종재	KCL	사시 40회
김재홍	KCL	사시 42회
조영희	LAB 파트너스	사시 37회
한원규	광장	사시 25회
정우영	광장	사시 28회
서윤정	광장	사시 38회
류명현	광장	사시 43회
조의연	광장	사시 45회
김대홍	광장	사시 46회
박정민	광장	사시 46회
이한경	광장	사시 48회
현승아	광장	사시 48회
김삼성	광장	사시 49회
남현수	기현	사시 39회
박찬문	김앤장	사시 34회
권오현	김앤장	사시 38회
박상용	김앤장	사시 41회
정준아	김앤장	사시 42회
강현정	김앤장	사시 45회
홍민영	김앤장	사시 46회
이정민	김앤장	사시 47회
김대혁	김앤장	사시 49회
박재홍	김앤장	사시 49회
허은진	김앤장	변시 1회
제강호	김장리	사시 26회
임진석	린	사시 30회
최진숙	바른	사시 38회
윤정옥	세움	사시 48회
황호석	세종	사시 30회
김대식	세종	사시 38회
문경화	세종	사시 39회
이상현	세종	사시 39회
서태용	세종	사시 40회
장윤석	세종	사시 40회
김용희	세종	사시 42회
이종욱	세종	사시 43회
양승규	세종	사시 44회
박용진	세종	사시 44회
정찬목	세종	사시 47회
황도윤	세종	사시 47회
엄상연	세종	사시 48회
송수영	세종	사시 49회
김규식	울촌	사시 35회
신영수	울촌	사시 36회
이준희	울촌	사시 39회
김진	울촌	사시 40회
김건	울촌	사시 43회
김태연	울촌	사시 43회
김시목	울촌	사시 43회



증권·금융		
윤종욱	울촌	사시 47회
강율리	지평	사시 37회
심희정	지평	사시 37회
이행규	지평	사시 38회
윤영규	지평	사시 38회
이승현	지평	사시 40회
안중성	지평	사시 52회
양시경	태평양	사시 29회
조영준	태평양	사시 29회
정의중	태평양	사시 30회
신희강	태평양	사시 33회
김기식	태평양	사시 36회
조정래	태평양	사시 37회
노미은	태평양	사시 41회
이정훈	태평양	사시 44회
김호진	태평양	사시 44회
김지이나	태평양	사시 45회
홍승일	태평양	사시 48회
김용현	한결	사시 42회
권영균	한결	사시 48회
김동철	현	사시 45회
이주용	화우	사시 42회
정현석	화우	사시 43회
강성운	화우	사시 44회
이보현	화우	사시 46회
제옥평	화우	사시 48회
조재륜	화우	사시 48회
최종열	화우	사시 48회
최용호	화우	사시 49회

대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울촌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역임한 김규식 변호사와 보험과 금융 등 자문경력이 20년이 더 된 신영수 변호사, 로펌에서 핀테크 분야를 개척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준희 변호사와 김진, 김건, 김태연, 김시목, 윤종욱 변호사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진다.

김진 변호사는 국내외 대체투자 분야의 전문가 중 한 명이며, 김건 변호사는 2013년과 2021년 사모펀드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TF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도 이주용, 정현석, 강성운, 이보현, 제옥평, 조재륜,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로 진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금융규제 쪽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주용, 정현석, 제옥평,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는 로펌에 합류하기 전 다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지평은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와 사모펀드 전문가인 안중성 변호사, 자산유동화 거래에 이어 최근 들어 국내 유수의 기업을 대리해 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리츠 상장 등 부동산금융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강율리 변호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무팀장을 역임한 심희정 변호사, 금융규제 업무에 밝은 윤영규 변호사, 서울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민간투자사업 및 PF 자문을 많이 수행하는 이승현 변호사 등이 유명하다.

### 김종재·김재홍, 펀드 자문 유명

이와 함께 PEF 등 펀드 관련 자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KCL의 김종재, 김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리의 제강호 변호사와 금융기관이 연루된 분쟁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용현, 권영균 변호사가 오래된 경력의 금융 변호사들이며,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의 조영희 변호사도 세종 시절부터 수많은 자산유동화 거래를 수행해 온 증권·금융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기현의 남현수 변호사도 기업금융과 구조조정업무를 많이 다룬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김종재 변호사

는 금융업 종사자들로부터 거래의 본질을 읽어내는 변호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법무법인 린으로 옮겨 대표를 맡고 있는 임진석 변호사가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의 판매, 운용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에서 금융사를 대리하며 활약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증권사, 보험사 등을 대리해 금감원 등 규제기관의 검사와 감리 등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돋보이는 대응 자문을 수행한다.

**◇강성운 변호사/화우=**자본시장, 특히 IPO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두 번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 기술성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등급을 받은 루닛, 역대 최고의 수요예측 경쟁률을 보인 성일하이텍, 소부장업체인 아이



씨에이치 등의 상장에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으며, 미국 기업인 Avellino Lab USA, 벨기에 기업인 PDC\*line Pharma 등의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수년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해외우량기업 유치활동의 주요 참가자로 활동해온 강 변호사는 현재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